

광주·전남서 코로나19 접촉자 꾸준히 발생...당국 긴장

제3국 감염 첫 사례 16번 환자, 의심환자 제외돼 많은 접촉자 발생

現240명 자가격리...1차 접촉자, 늦게 알려 하루 2~3명 추가 확인

광주·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하루 2~3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A씨(42·여)는 이후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인 이후 지난 4일 16번 확진자로 판명됐다.

16번 환자는 입국한 뒤 1월25일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27일

광주 21세기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약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지난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다음날 확진됐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첫 사례인 16번 환자는 여러 차례 코로나19 의심환자에서 제외되면서 증상 발생에서 확진까지 열흘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우선 A씨 가족 4명이 격리됐고

A씨의 남편 직장과 아들의 어린이집이 폐쇄됐다.

또한 A씨의 딸(21)이 18번 확진자로 발생함에 따라 18번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광주 21세기병원 의료진 70여명과 입원환자 70여명이 '코호트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21세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광주시립에솔단원이 속한 8개 단체 305명도 자가격리됐다.

이후 A씨 가족이 설 명절을 맞아 전남 나주의 친정집을 찾은 것

으로 알려져 A씨 오빠(46)가 근무하는 광주우편집중국도 폐쇄됐고 이후 오빠는 22번째 확진자로 판명됐다.

다행히 22번 확진환자는 완치돼 17일 퇴원했으나 접촉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6번 환자로 인해 딸과 오빠가 각각 18번, 22번 확진환자로 추가 판명됐고, 그로 인한 접촉자는 광주전남에서 460여명에 이르러 240여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하지만 1차 접촉자들이 본인들의 접촉자들을 뒤늦게 알리면서 현재도 매일 2~3명 인파의 추가 자가격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추가로 이



동경로나 방문지를 기억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다만 의심증상은 없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번 확진자 퇴원...16·18번 상태는 '안정'

의료진 "격리해제 등은 좀 더 지켜봐야" 의견

가족 전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된 22번 환자가 17일 퇴원한 가운데 16번 환자와 18번 환자의 딸인 18번 환자의 상태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광주 첫 확진자인 16번 확진자 A씨(42·여)와 A씨의 딸인 18번 확진자 B씨(21)의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A씨와 B씨가 안정적인 상태지만(퇴원이나 격리해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병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의 퇴원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7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 21세기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

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면서 3일 오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격리됐다.

감염 배제를 위해 음압병동으로 격리조치한 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A씨의 딸 B씨는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18번째 확진환자가 됐다. 이들은 각각 전남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친정오빠이자 22번 확진자인 C씨(46)는 지난달 25일 설 연

휴에 전남 나주에서 A씨와 식사를 한 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동에 격리 입원했지만 입원 당시 발열이나 오한 등 증상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은 A씨를 격리하고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투여하며 상태를 지켜봤다.

병원 측은 A씨가 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17일 퇴원을 최종 결정했다.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당국은 다만 22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부인과 어머니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그동안 폐쇄됐던 마을 회관도 어제(16일) 다시 문을 여는 등 마을주민들 모두 일상에 복귀한 상태"라며 "농사 준비 등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어 "22번 확진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이 적극 도움 예정"이라며 "가족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숨을 내쉬던 광주시청 인근 식당가가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다.

식당에 "시장님~ 감사합니다" 펼침막...왜?

광주시청 구내식당 영업 한시중단...공직자 이용에 매출 '경춤'

"시장님~ 감사합니다." 폭설이 내린 17일 낮 광주광역시청 인근 한 식당.

식당 정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 이용섭시장님 감사합니다"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식당 정문에 이같은 펼침막이 내걸린 것은 최근 광주시청 주변 식당을 비롯한 상권이 갑자기 살아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다수 식당에 손님이 뜰 뻔했던 것과는 달리 광주시청 주변 음식점은 점심시간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적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시청 주변 음식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내식당 중식과 석식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하루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청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숨만 내쉬던 시청 식당가가 때마침 '호황'을 누리게 됐다.

시청 주변 한 식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청 구내식당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며 "걱정 없는 결정을 해준 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퇴원 22번 확진자 마을 "일상복귀 적극 도와야죠"

"감기치료 받고 오는 것과 특별히 다를 게 있겠는가"

"오늘 22번 확진자가 퇴원하면 저녁에 만나 차 한 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22번째 확진자(46)가 17일 오후 입원 중인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는 가운데 22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주민들은 일상으로 복귀를 환영한다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이장 A씨는 17일 오전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22번 확진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오후에 퇴원한다고 하더라"며 "퇴원하면 저녁에 집에서 만나 차 한 잔 마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감기치료 받고 오는 것과 특별히 다를 게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16번 확진자(42·여)의 친정오빠인 22번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설 연휴에 전남 나주에서 16번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 한 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선대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아온 22번 확진자는 증상 호전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열흘만인 지난 16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다.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와 PCR 검사결과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